

~主内平安~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에는 아이들도 개학하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도 시작되어 많이 바쁘셨지요? 지금쯤 한국에는 곧 벚꽃이 만개하겠네요. 비록 이곳에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SNS를 통해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금식기도

저희 부부는 <가장 오래된 새 교회>를 함께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할 때 금식으로 나아갔던 성경의 사례들과 저자의 경험을 통해,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리더들을 포함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 교회의 원칙적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단에서는 데에는 은사만 있으면 되고 굳이 신학교 출신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 이 시대에 치유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한 형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자매는 기도과 관련해 대표기도는 예배 인도자만 해야 하며, 미리 준비된 기도문을 읽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는 형제에게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 그리고 설교에 대한 평가 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온유하게 교제하며 성경적으로 가르치려 했지만,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아내와 함께 7일 동안 저녁 금식기도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서 역사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물질 중심, 사람 중심, 관계 중심적인 부분이 남아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목회자를 따라오려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3월에는 두 차례 금식기도를 했고,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7일 동안 한 끼 금식기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붙잡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이사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는 이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피지에서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사짐을 옮겨줄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고 무사히 새로운 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지만, 마침 가전제품 할인 기간과 맞물려서 후원교회와 후원 목장, 그리고 개인 후원자분들께서 이사 현금을 보내주셔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도 빈 적 없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저희 상황을 들으시고 사용하지 않던 침대와 전자레인지, 그릇 등 여러 생활용품들을 보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 집은 아직 청소와 간단한 수리가 필요하지만, 이전 집에 비해 쥐나 도마뱀, 벌레가 훨씬 적어서 감사하고, 이안이도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더욱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외출하는 일이 이전보다 많

아졌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시내로 운행되고, 교회나 마트, 병원에 갈 때는 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택시는 호출해도 기사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기도 하며, 탑승 후에도 어떤 길로 갈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영어가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항상 구글 지도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집 앞에서 바로 차를 탈 수 있어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 오는 날, 이전 집에 있을 때는 이안을 안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끼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안이와 저 모두 크게 다치지 않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1. 엘림중국인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개척교회이다 보니 차량 봉사와 식당 봉사가 가능한 분들을 중심으로 리더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권위보다 세상의 권력이나 위치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지만, 피지에 와서는 저희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생활적

으로 충분히 도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금식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3. <생명의 삶> 수강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형제 부부의 영향으로 7명이던 수강생이 현재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아 있는 수강생들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고,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이안의 피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안은 한 달 전부터 팔꿈치와 가슴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모기 물린 것으로 생각해 여러 연고를 발랐지만, 효과가 없었고, 가려움으로 계속 긁으면서 점점 변했습니다. 지난주 병원 진료 결과 벌레 물림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기침도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옷은 모두 다림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일주일간 먹으면서 가슴 부위는 조금 호전되었지만, 등과 다리에도 증상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안이 보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피부가 속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피지 수바에서
최예녹, 진실라, 이안 드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 2035 6666 02
장산교회 선교부

부록사진

- 생일파티(교회 3명이 같은 날 생일이라 교회에서 같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 현재 삶공부 수강생



- 3월 8일 여성의 날 선물(초콜렛, 부채)

